

일주문

제9기 불교영아강좌 개최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7일~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봉은사 수련원서 '제9기 불교영아강좌'를 개최한다.

열린선원 개원 10주년 기념잔치
법현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 스님은 9월 12일 오후2시 역촌중앙시장 열린선원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잔치를 개최한다. (02)386-4755

공불련 창립 15주년 합동수계법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0월 3-4일 '창립15주년 기념 합동수계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동대부여중 교장 취임
김형중 동대부중 교장은 9월 1일자로 동대부여중 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9월 7일 열린다.

위덕진각봉사단 강동면과 MOU
임성옥 위덕대 위덕진각봉사단장은 8월 19일 위덕대 인성기초교육원에서 경주시 강동면 유곡2리(이장 김정철)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고고학 거목' 김정기 박사 별세

한국 고고학의 거목이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창산(昌山) 김정기(金正基) 박사 <사진>가 노환으로 8월 26일 오후 7시 30분에 별세했다. 향년 85세.



김정기 박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1950년 마산 공립중학교 졸업 이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56년 일본 메이지(明治)대 공학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1959년에는 도쿄(東京)대 공학박사를 받았다.

고인은 우리나라 주도로 유적발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부터 19070년대까지 대규모 유적발굴이 이뤄졌던 만큼 불교문화재와도 인연이 깊다. 한국 기술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적 발굴은 1959년 경주 감은사지 발굴이었고, 이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1975년 문화재관리국(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 재임 시절 고인은 황남대총과 황룡사지, 안압지 등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주지역 대부분 유적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등 중요한 발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아울러 현장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일제가 아닌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여 후학 양성에도 이바지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의 유적을 발굴한다'(1977) '한국의 고건축'(1980)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사 사관 재정립해야”

대정학술상 수상한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40년전 논문 재검토해 화제
통불교 사관 등 통념 버릴 것 강조

“40여년 전 제가 천착한 신라 교학불교에서 고려 실천불교인 선종으로의 교체라는 선종사 해석은 사회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계의 연구는 미시적인 접근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거시적인 문제의식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자료의 단편적인 이해를 양산하는 연구자세와 인식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재)대정장학재단이 수여하는 2015년 대정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불교학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8월 27일 이같이 밝혔다.

최 명예교수가 수상한 논문은 2014년 '불교학연구' 41집에 수록된 '선종 초기 전래설의 재검토-단속사 신행선사 비문의 분석'으로 최 교수가 40여년 전 발표해 학계의 주류학설로 자리한 초기선종사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한국불교사 이해를 고대불교, 고려불교, 조선불교, 근대불교 연구로 확대해 한국불교사 전체의 이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4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최 명예교수는 수상소감보다 학계의 연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학들이 연구방법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최 명예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국 불교사 이해에 대해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양산했음에도 그 이해 수준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며 “통불교와 회통불교라는 시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아시아 불교 전체의 흐름에서 한국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특히 통불교와 회통불교,

호국불교에 대한 현재 불교학계의 한국불교 성격 규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명예교수에 따르면 통불교와 호국불교 개념은 일본 메이지시기 일본불교계가 널리 사용하던 것을 한국불교계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일본 근대불교사학 성립 시기 통불교와 호법호국론 등의 책들이 잇따라 발간되고, 무라카미 센쇼에 이르러 통불교와 호국불교 용어가 학술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근현대 한국학자들에게 의해 국내에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일본 영향 하에도 저항해야만 했던 한계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며 “이후 군사독재정권 아래 호국불교론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도 정치적인 의도”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나무를 볼 때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보니 나무 하나의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불교사에서 그동안 통념으로 자리한 것들에서 벗어나 아시아 불교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에서 한국 불교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상 및 장학금 수여식은 9월4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 갤러리아포레 연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옥천 대성사,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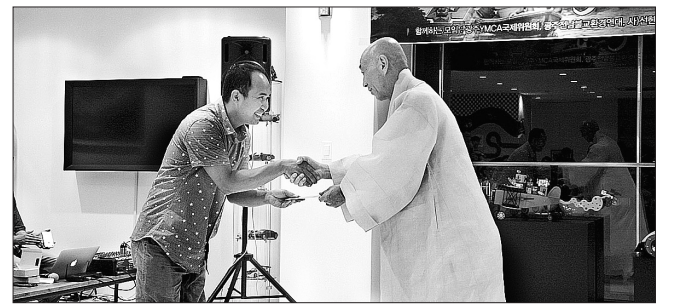


중매사찰 태고종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8월 21일 옥천군수 집무실서 (재)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대성사 신도인 옥천국악협회 손경숙 회장과 故 황의영 영가의 49재에 동참한 가족들이 심시 일반 마련했다.

손경숙(옥천국악협회 회장) 불자는 봉사를 통해 행복을 얻고 나눌 수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성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선남선녀 인연맺기 법회를 봉행하는 등 대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빛고을나눔나무, 미안마 돕기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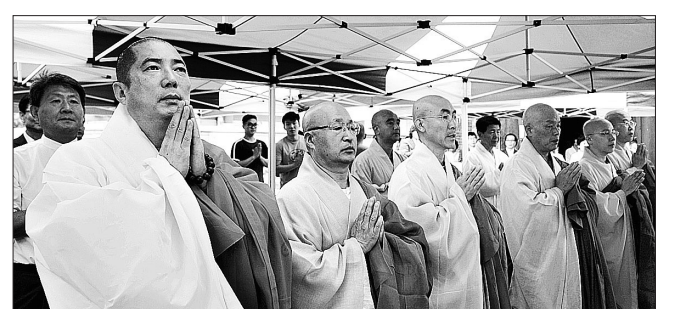


대홍수로 슬픔에 빠져있는 미안마 국민들을 위한 자선행사가 8월 25일 상무지구 말리커피 2층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선바자회와 작은음악회, 경매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는 이날 나눔금 100만원을 마련해 미안마 대표에게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각사, 일연 스님 726주기 다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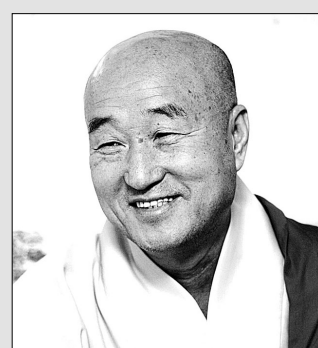
군위 인각사(주지 종범)는 8월 21일 경내 국조전 앞마당에서 보국사 일연선사 제726주기 다례재와 함께 삼국유사 문화의 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각사 주지 종범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이영민 군위군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종범 스님은 “보석 같은 삼국유사의 문화예술 작품 내용들을 시낭송,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과 베트남 우호 증진에 앞장 설 것”

일연 스님, 베트남서 월남전 희생자 천도의식



동국대 이사장 일연 스님(1대 군종교구장·사진)은 8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나트랑의 십자성부대를 찾아 베트남 희생자 영가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이들은 나트랑시 교찰인 용산사(隆山寺)에 이어 십자성부대의 불광사를 차례로 방문, 영혼천도와 해원상생의 기도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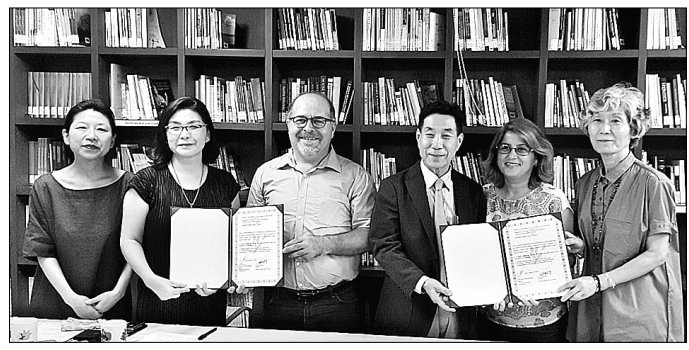
이번 천도의식에는 2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자광 스님과 전 선운사 주지 법현 스님, 수명 스님, 혜광 스님 등이 동참했다.

천도의식 후 일연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이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진력하고, 특히 베트남 사람들을 친절하게 우대하는 불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와 이슬람문화 교류 물꼬를”

불교영어도서관, 터키 에르지예스대와 MOU



불교영어도서관(관장 양장운)과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가 8월 27일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장은 관장과 정진원 불교영어도서관 국제교류협력 총괄 부관장, 에르지예스대학교 동양어문학부 학장부 객설 튀르키즈 교수와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하티제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은 한국불교 강의와 불교문화체험을 통해 터키와 주변국에 한국 불교를 알릴 예정이다.

에르지예스대학교는 앙카라대학에 이어 터키에서 두 번째로 한국학학과를 개설한 대학으로 1998년 학과가 설립된 이래 현재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한편, 불교영어도서관은 지난 5월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대학을 위시해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화에 나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력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문의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학교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교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천도재, 49재 의식 처음부터 (시련, 대령, 관음)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9월 4일 금요일